

# 돌고래는 어떤 동물?

돌고래의 지능은  
오랑우탄, 침팬지  
등의 대 영장류나  
인간의 영아와 같은  
수준!



자의식이 있으며 관념적 사고까지 가능하답니다.



가족과 친구들 간에  
강하고 복잡한  
유대관계를 갖고  
있는 사회적 동물!

평생을 가족으로 이루어진 한 무리 안에서 생활하며  
보냅니다. 자연상태에서 돌고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 
사냥하거나 동족과 교류하면서 집단으로 놀이를 하는 등의  
습성을 보인답니다.

하지만 지난 30년 간 사육 상태에서 죽은 해양 포유동물의  
숫자는 무려 3,850 마리!!

# 돌고래

# 포획의 잔인성!



**돌고래의 민감한 청력을 이용!**

**공포심 유발, 방향감각 손실하게 해...**

비행기, 배, 작살, 폭발물 등의 소음을 사용해 인간보다 몇 천 배 민감한 청각을 가진 돌고래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방향감각을 잃게 합니다.

**쇼 장에 거래 or 살육!**

연안으로 내몰린 돌고래. 사냥꾼들은 전 세계의 돌고래 수족관과 돌고래 쇼 장에 팔기 위한 돌고래들을 고릅니다. 나머지는 살육당해 고농도의 수은 축적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고래고기로 팔려나갑니다.



**가족과 동료들 지키기 위한 몸부림!**

돌고래들은 종종 자신들의 가족과 동료들 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. 캐나다 연안에서 시애틀의 수족관에 팔려가기 위해 잡힌 고래 “나무” 는 철창에 갇혀서 운송되는 내내 그의 가족들이 배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.



# 돌고래 수족관의 잔인성! -1

출처: 한겨레(강재훈 선임기자)



## 비좁고 제한된 공간!

하루에 160 킬로미터 이상을 수영하던 돌고래들은 하루 아침에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만 한 크기의 수족관에 감금됩니다. 좁은 수족관 벽에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포획된 돌고래의 절반을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합니다.

## 화학물질이 첨가된 소독물에 노출!

돌고래의 배설물을 소독하기 위한 염소 등 화학물질로 유지되는 수족관의 물...이로 인해 돌고래들은 피부가 벗겨지고 심지어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,

##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!

제한된공간과 인위적이고 단조로운 환경, 죽은 먹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돌고래들은 작은 원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도는 상동증과 무기력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상 행동을 흔하게 보입니다.



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

동물자유연대



# 돌고래 수족관의 잔인성! -2



## 죽은 먹이로 인한 질병!

자연상태의 돌고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이를 섭취합니다. 하지만 사육 돌고래는 죽은 먹이를 공급받는 등의 스트레스로 만성 위장병에 시달립니다. 위장병에 시달리는 돌고래들에게는 위장약을 넣은 생선이 급여됩니다.

##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!

돌고래는 물 안에서 임신부 뱃속의 태아의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돌고래쇼장에서 듣는 크게 울려퍼지는 음악과 청중의 함성은 참기 힘든 고문입니다.

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돌고래 중 반 이상이 포획 도중이나 감금 상태에서 내장 기관 질병, 염소 중독, 또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폐사합니다.



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

동물자유연대



# 돌고래 방생이 더 잔인하다?



1964년부터 70마리 이상의  
돌고래가 자연에 방생! (미국 해양 수산부)

- \* 1993년 브라질 : 10년 이상 사육시설에 있던 돌고래 ‘플리퍼’ 방생, 1995년까지 관찰
- \* 1992년 바하마 : 17년 동안 갇혀있던 돌고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
- \* 1990년 미국 플로리다 주 : 실험용으로 2년간 사육된 돌고래 에코와 미샤가 성공적으로 방생
- \* 1992년 호주 : ‘아틀란티스 마린 파크’ 라는 수족관이 경제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수족관 안에서 탄생한 개체 2마리를 포함한 11마리의 돌고래를 방생, 이 중 9마리는 무려 11년을 감금당해 있었음.

야생에서의 먹이 습득 능력과 약화된 체력을 회복시키는  
적응 훈련을 통해  
돌고래에게 고향으로 되돌아갈 자유를!